우선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고있는 통학생으로서 울산에 머물고있어야할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숙소가 없어서 곤란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매번 다니지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서울,경기권 학생이나 학교에서 먼곳에서 오는 학생들은 매번 시간을 내어 학교에 오기 힘들다. 며칠동안 학교에 있어야할 상황이라면 밖에서 잠을 잘 공간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 자취방을 계약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취방에 세입자가 줄어들어 경제난을 겪고있는 자취방업자도 생겨나고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어있는 자취방에서 필요한 기간동안 머무는 법이 있다. 그러면 매일 긴 거리를 이동할 필요도 없고, 자취방 업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다.

현재 이런기능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바로 에어비앤비이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별장등 사람이 지낼수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C%96%B4%EB%B9%84%EC%95%A4%EB%B9%84)

하지만 에어비앤비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에어비앤비가 울산지역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조사가 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는 수수료가 적용된다. 호스트가 제안한 가격의 15%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운영하고 연중무휴 고객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외국서비스이므로 한국에서 서비스이용료를 허가받기위한 수수료도 따로 지불해야해 세입자의 부담이 더 크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결제방법이 어렵다. 에어비앤비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카드만 사용이 된다. 학생들이 주로 쓰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는 물론 일반 카드도 사용이 안된다.